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각 교구, 대학부, 청년1부가 중심이 되어

하기 농어촌전도대 파송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각 지역으로

전 도위원회(위원장 강은원 장로)에 서는 오는 7월 22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각 지원 교회 및 특수 교회에 하기 농어촌전도대를 파송하기로 했다. 교회는 '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농어촌 지역에 전도대를 파송하여 전도활동, 계몽활동 등을 벌이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교회 초창기부터 해왔다.

최근에는 우리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미자립 농어촌 교회와 특수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남녀 전도회가 각 교구별로 세분화되면서 각 교구별로 지원받는 농어촌 교회에 각 교구 식구들로 구성된 전도팀이 나가서 늘 새롭고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꾸준히 전도활동을 펴왔다.

지난해에는 대학부, 청년1부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회와 특수 단체에 파송하였었다. 금년에는 각 교구에서 지원하는 교회에 교구에서 구성한 팀과 대학부와 청년1부의 전도팀을 파송할 계획이다. 또한 예년에는 우리교회 교역자가 함께 참가하여 전도집회를 인도하곤 했는데,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교회의 교역자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현지 실정에 적응토록 하기 위하여 교역자는 파송하지 않기로 했



다. 따라서 파송된 전도대는 현지 교회 담당 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현지 사정에 맞는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전도활동으로 낮에는 축 호전도, 밤에는 부흥집회를 실시하여 낮 동안 전도한 사람을 저녁에 초대하여 부 흥집회에 참석하게 한다. 흔히 많이 하 게 되는 여름 성경학교나 주교 보조활동 도 전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학부와 청년1부에서는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낙도와 내륙 오지에서 축호전도를 실시해 오고 있어 실제적인 전도활동과 전 도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금년에는 대학부와 청년1부는 낙도나 내륙 오지에 전도팀을 보낼 계획이다. 이처럼 대학부와 청년1부의 전도대 파 송 및 지원 등은 앞으로 우리교회의 주 역이 될 젊은이들이 봉사, 전도활동 등 을 실제적으로 감당해 보는 훈련의 장 (場)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전도대의 일정을 일괄 정리 관리한다. 따라서 앞으로 전 도대원 훈련 및 기도회, 전도대별 모임, 전도보고대회 등을 전도위원회가 주관 하게 될 것이다.

각 전도대는 대당 10명 내외로 이번에는 10여개 정도의 전도팀이 파송될 계 획이다.(사진은 지난해 농어촌전도대 파 송예배 장면)

'96년도 1학기 성경연구원 증강

1996년도 1학기 성경연구원이 종강을 했다. 지난 3월 9일 개강한 성경연구원 각 반이 지난 주간 각 반별로 모두 종강 됐다. 이번 1학기 수료생 및 이수생은 각 반별로 다음과 같다.

· 주간 성경공부 이수	242명
· 교사 양성부 수료	127명
· 교사 연장교육 수료	21명
· 찬양대원 양성부 수료	36명

2학기는 9월 초에 개강하게 된다.

실업인전도회

특별 초청집회

7월 9일, 강사에 장봉생 목사

실업인전도회(회장 임무천 장로)에서 는 대상 회원 초청 전도잔치를 오는 7월 9일(화) 오후 7시에 갈릴리움에서 갖게 된다.

실업인전도회에서는 이번 집회에 대 상자만이 아니고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 들이 함께 참석해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충현실업인전도회의 하는 일을 보고 이 해의 뜻을 넓혀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날 집회의 강사는 장봉생 목사(대 학부 지도)이다.

집회 후에는 간단히 다과를 나누며 참 석자를 위한 기념품도 준비하고 있다.

'96년도 상반기

정기 회계 감사

감사위원회(위원장 박승준 장로)는 1996년도 상반기 정기 회계 감사를 아 래와 같이 실시한다. 따라서 해당 부서 에서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 래-

- 장소: 감사위원회실(선교관 404호)
- 기간: 7월 7일 ~ 8월 4일
- 시간: 매주일 오전 9시 ~ 오후 2시
- 지참서류: 금전출납부, 원장, 시산표, 영수증철, 은행통장, 증빙서류 등

금주의 여름수련회

대학부·장년2부

교회학교의 여름 계절학교가 7월로 접어들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주에는 대학부가 7월 1일부터 4일 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로 모인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모이는 대학부 여름수련회의 강사는 중앙대학교 교수인 최재선 박사와 대학 부 지도 장봉생 목사이다.

장년2부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 제하에 7월 1, 2일 양일간 수원 합동신학 교에서 제18회 여름수련회로 모이는데 강사는 김길성 교수(충신신학대학원)와 장년2부 지도인 윤영탁 목사(협동목 사, 합동신학교 교장)이다.

홀트 입양 가족 모국 방문단

42명이 충현교회 방문

민박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필요해

홀트 입양 가족 모국 방문단 42명(양 부모 포함)이 오는 7월 6일(토) 충현교회를 방문한다. 이는 입양 가족들이 모국을 방문하여 모국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도 우리교회에서 방문단의 일부를 맞아 도왔다.

지난해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지내고 떠나보내면 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해주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그들이 큰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특별히 입양아들에게 한국인이라 는 긍지를 심어주려고 애쓰는 양부모들

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7월 6일 오후에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들과 양부모 42명이 다시 충현교회를 방문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의 외로움을 함께해 주고 위로해 줄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할 일은 7월 6일(토) 저녁식사와 잠자리 제공, 7월 7일(주일) 아침식사 제공이다. 7월 7일(주일) 아침식사 후 교회에 오면 영어예배부가 나머지 일정을 맡게 된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영어예배부 부감 이석영 집사(☎ 445-5999)나 김정순 집사(☎ 407-7330) 앞으로 연락하면 된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승리로 드리는 감사의 노래

(시편 21:1-13)

본 시편의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저자의 환경은 암몬나라의 하느 왕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도망다닐 때 진 신세를 갚기 위해 대신 몇 사람을 조문으로 보냈는데 그 나라의 신하들이 다윗 왕이 신하들을 보낸 것은 암몬나라의 내정을 알아내어 침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영등한 고소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젊은 왕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 망신을 주고 쫓아보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다윗 왕이 침략해올까봐 걱정하면서 미리 쳐버리자고 하느 왕이 군대를 일으키고, 자기 나라 군대만으로는 모자라서 이웃 네 나라의 군대들과 돈을 주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옵니다. 신세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이때 다윗 왕은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과 신하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크게 승리를 하였는데 피자에 몇 사람 죽지도 않고 전쟁이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약한 하느 왕은 전쟁을 일으켰다가 졌고, 명예도 떨어졌으니 가만 있을 수 없다 하여 또다시 이웃 군대들을 돈을 주고 사서 병거 7백 대, 마병 4만 명,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병을 일으켜서 두번째 이스라엘을 쳐들어 옵니다.

이때는 다윗 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고 여러 나라와 연합해서 쳐들어 옵니다. 나는 병거도, 마병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다윗 왕과 백성들이 뭉뚱뚱치서 기도하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하면서 싸웠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원수가 준비한 병거 7백 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때려 부수고 마병 4만 명 한 사람도 안남기고 다 쳐치해 버리고 원수의 장군을 쳐치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병들을 다 정리하고 수도 랍바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이 썼던 금면류관을 벗겨서 다윗 왕이 쓰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대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쓴 시가 시편 21편입니다.

1.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합니까

(1) **힘과 구원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21:1)

사람들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역관이고 인생은 길게는 나그네이니 먼 길을 가려면 전장의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일터로 사람들은 일꾼이니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전쟁 대당이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군인이니 힘이 필요합니다. 만물을 이용할 줄 아는 과학적 지혜의 힘이나 돈, 기술, 신 무기의 힘도 필요합니다.

땅 위의 사람들은 이런 힘이 있으면 뽐내고 이런 힘이 없으면 좌절하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무엇으로 힘을 삼았습니까? 병거도 없고 마병도 없습니다. 다윗 왕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합니다. 다윗이 이번 전쟁에 승리하고 구원함을 얻은 것은 자기의 실력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늘 나라의 군대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의 힘이 되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2)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21:2)

사람들은 건강, 지식, 권세, 무기, 돈을 가진 사람과 의논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과만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마음에 받았습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길런지 질런지 아무도 모르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번에 이긴다" 싸움하기도 전에 기도의 응답을 미리 받으면 승리의 기쁨이 먼저 옵니다. 이런 자는 용기가 생겨 결과적으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원수가 쳐들어 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섬기는 원수 나라에게 지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기게 하소서" 차원 높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 왕의 기도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3) **영광을 주심을 찬송합니다** (21:3)

뜻하지 아니한 때에 갑자기 원수의 연합군이 홍수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전쟁이야말로 위태로운 일입니다. 멸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군심은 개량으로, 혹은 변류관으로 바뀌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군심이 생길 만한데, 모든 군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전쟁에 나갔더니 하느 왕이 썼던 금면류관을 다윗 왕이 쓰고 하늘 왕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앞도려서 항복을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투구만 쓰고 나갈 왕이 돌아올 때는 면류관을 쓰고 들어옵니다.

(4)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1:4)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의 힘이 되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백성의 생명을 사랑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 밖에 없는 왕이 죽으면 큰일이니 왕의 생명을 보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왕은 손톱 하나 안다치고, 백성은 생명 손해받은 자 별로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렸습니다.

(5) **왕으로 오동치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1:5-7)

이 전쟁이 끝남으로 다윗 왕의 권위가 튼튼히 섰습니다. 이웃의 여러 나라들이 자진해서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이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2. 장래 일에 대한 감사가 어떠합니까(21:8-12)

장래에도 복주실 것을 믿고 찬송합니다. "만 가지 복을 주신 하나님, 지난날에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평생토록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 왕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요 다윗 왕은 하나님과 하나이니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그러나 이번만 요행히 이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주신 은혜로 사랑으로 보호하심 어찌 의심하리오 언젠든지 나의 주는 사랑하시는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룸답게 이루어 주시네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하나님에 앞으로 계속 돌보시고 승리를 주실 것에 의심없이 믿어잡니다. 다윗 왕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해하기 전에는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씨게 속에 보호를 받으니까 다윗 왕의 원수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풀무불을 준비했다가 제가 타고 활을 쏘려고 준비했다가 못쏘고 돌아서서 도망잡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제금 망할 뿐만 아니라 제금 망한 원수들의 후손들은 제기의 부모의 원

수를 갚겠다고 해서 다윗 왕에게 결눈질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 승리입니다. 다윗 왕에게 원수 갚을 마음도 못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승리가 내다보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좋아서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3. 송영(21:13)

왕과 백성이 함께 송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권능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원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권능으로 구원하시니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원수 족속들 가운데서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 생기겠구나" 이것이 송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면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인생 최대의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인생 최악의 불행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언제나 역사하시고 그 권능이 그에게 축복이 된 자는 행복자이고, 그 권능이 그에게 심판이 된 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내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제와 여러분이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살려 주시면 저 끝났다고 뽐내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조상하세 계속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 나님께서는 전지전능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천국일꾼들의 열심'을 사용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천국일꾼은 천국 일꾼들에 의해서 양성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한 발(?) 앞서가는 천국일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스승보다 낮지 못하다'고 말씀하심으로 교회교육의 성패는 교사들에게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막중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그래서 사명감에 불타는 교사들이 많을수록 우리 교회의 앞날은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의 날에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는 얼마나 하기 쉬우냐에 따라서 택하거나, 얼마나 인기(?)가 있는냐에 따라서 택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 부처에서 봉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충성되게 봉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여름 계절학교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기간에는 최우선적으로 교사직에 충성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좋은 선생님이 계셨던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더구나 신앙의 확을 그을 수 있는 영적 변화와 성장의 계기가 대부분 계절학교나 수련회 때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마지못해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까? 이번 여름 계절학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하지 않겠



＊ 여름 계절학교를 위하여 ＊

소망 중에 열심히 뿌리시다

이 종 대

(목사, 교육위원회, 소망부, 제2교구 지도)

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아직도 세상의 재미가 더 좋고 기회만 있으면 세상 친구와 어울리고 하는, 안타까운 학생이 있습니까? 이번 여름 계절학교가 성령 충만받아서 일생 잊지 못할 하나님께 헌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손 대대로 천국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계절학교가 자녀손들이 변화되어야 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회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학교의 행사, 가문(가정)의 행사, 관광 여행, 단체 훈련, 취미 활동, 과외 공부, 보충 수업... 여러 가지를 다 확보하고 시간이 있으면 교회의 여름 계절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우선으로 여름 계절학교의 기간을 확보하고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변화가 있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중을 꿰뚫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마귀의 유혹을 묵상하시겠습니까? '해도 안된다' '그 전에도 그랬지, 헛수고야' 이런 생각은 다 말씀과 반대되므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기록되었으되 힘들어도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



였느니라" 성경 말씀과 다른 생각은 다 물리치시고 소망 중에 열심히 뿌리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날마다 간절히, '이번 여름 계절학교에서 은혜받고

변화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약 4:2) 교사들은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부서별 교사 기도회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전하실 교역자, 특강 강사, 모든 프로그램 담당자, 참석해야 할 학생 개개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안

전, 날씨, 책방 차단...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쉽게 하는 비결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심은 대로'의 원칙을 초월하지는 않으십니다.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교구에 심방다니면서 지난 겨울 계절학교 참석 학생이 변화되어서 기뻐하는 가정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 반 학생도, 우리 자녀손도 받을 은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 실천 하심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그 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교사들과 학부모(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성경연구원을 수료하고 ◆

성경 전부를 보는 지혜 터득

한 연 속

(권할, 제6-1교구)

요 사이 낮에 집에만 있는 주부가 몇이나 될까? 여기저기로 자기 관리와 자기를 찾기 위해 몰려다닌다. 백화점의 문화센터와 스포츠레저센터는 주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10시만 되면 우리교회 교육관은 성경공부 하러 오는 성도들로 술렁인다. 조용히 묵상으로 한두 사람씩 모인 이 모임들은 교육관의 이곳저곳에서 시작된다.

원 머라 고우신 권사님으로부터 나이, 재능, 담녀노소 할것없다. 맨 처음 성경공부반에서 권사님들을 뵈었을 때 나는 속으로 내심 놀랐다.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듣고 쓰고 또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자극을 받게 되었다.

약 3개월간의 수업 동안에 성경의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전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끊임없는 약속과 사랑을 주심을 알게 되었으며, 갈라디아서

를 공부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도 역시 믿음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 또한 요한계시록과 종교개혁사를 통하여서도 예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 깨닫기도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교회처럼 큰 교회는 이같이 작은 성경공부반으로 공부하며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목사님까지도 모르고 지나치기까지 한다고 한다. 나는 이 성경공부반을 통하여 여러 목사님들을 알게 되었고 여러 성도님들과도 교제를 갖게 되었다. 나와 같은 구역에 있는 집사님 한 분도 함께 공부를 하는데 무척이나 열심히하시고 즐거워한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었다.

늘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양육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친다.

이 책은 내적 자아와 동료 인간들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영적으로 발돋움할 것인가를 묵상의 형식으로 다룬 깊이있는 경건 서적입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

과 관련이 있는 영적인 삶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적개심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향하는 두번째 움직임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상에서 기도로

● 책을 읽읍시다 ●

영적 발돋움

헨리 J. M 누엔 지음, 이상미 옮김
두란노출판사

최영란

(전도사, 제10-2교구 부지도)



을 의미하는가라는 물음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진지하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정쩡하게 매달려 있는 우리의 안의 양극점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각 부분은 영적인 삶의 각기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로움에서 홀로 있음으로 향하는 첫번째 움직임은 자신의 자아가 겪는 바



향하는 마지막 세번째 움직임은 모든 영적인 삶의 근원이 되는 가장 귀하고도 신비로운 관계인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 대한 공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진정한 영적인 발돋움을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새롭고 힘찬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서는 '영적 발돋움' 이 한 권의 책을 권합니다.

토막소식

▶ 초등2부는 찬양대원을 추가로 모집한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릴 어린이는 오늘 오전 10시 ~ 11시에 연습실로 가서 찬송가 234장 1절로 오디션을 받아야 한다.

▶ 초등4부는 오는 7월 7일에 새친구 초청잔치를 연다. 초등4부는 이 잔치를 위해 그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해왔는데 오늘 잔치에 초대된 친구들이 많이 나와 은혜롭게 치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 중등1부는 오늘 면려회 헌신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는 사회와 기도를 학생들이 담당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뜻깊은 예배가 될 것이다.

▶ 고등부는 2/4분기 QT, 성경읽기 등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한 학생들을 시상하기로 하였다.

▶ 사랑부에서는 차량봉사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사랑부의 특성상 학생들을 태우고 교회에까지, 교회에서 각 가정까지 데려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차량을 운행할 교사들이 부족한 상태. 이는 오전, 오후 계속하기에 본인은 주일날 차량 봉사외에는 아무일도 할 수가 없어 적절한 봉사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사랑부에서는 오전(오전 8시 ~ 10시 30분)과 오후(오후 12시 30분 ~ 3시) 중 한번만이라도 봉사할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다.

▶ 예비신랑신부교육부는 오늘 반별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실시한다. 지정곡은 288장이다.

▶ 새가족부는 오는 7월 14일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잠언 3장 1-12절, 요한일서 4장 7-12절이다.

청년1부 오늘 총동원 전도 운동

청년1부는 교회내 20대 청년을 청년1부로 불러 모아 20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마련된 청년1부에서 함께 교육받으며 함께 교제하며 지내기를 바라며, 또한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사역과 국내 낙도·오지 전도 사역을 위해 동참하기를 원하며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1부에서는 6월 29일(토) 오후부터 선교 바자회, 일일 찾집, 찬양 콘서트 등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편 오늘(6월 30일)은 총동원 주일로 모이며 교회 내의 20대 청년들과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여 청년1부 전체모임으로 모인다. 장소는 교육관 507호, 시간은 오후 12시 30분

선교위원회

성경, 찬송가 수집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지에 보낼 성경, 찬송가를 수집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깨끗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성경과 찬송가(가능하면 합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기간 : 7월 14일(주일)까지
- 수집장소 : 본당 로비, 사무국, 선교위원회실(선교관 405호)

* 소망부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

예수님만 드높이는 생활 다짐

이 형 주

(권사, 소망부 교사)

1996년 6월 24일 오전 9시 30분 충현교회를 출발하여 충현기도원을 향해 버스 8대가 줄을 이어 떠났습니다. 전날 밤부터 내린 비는 출발하는 직전, 아니 도착 직전까지 아마 금년 중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많이 온 비였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학생들이 반수도 못나오시면 어쩌나 하고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 웬일입니까? 그 우중에도 그렇게 많이 오셔서 등록자가 323명. 은혜롭고 질서있게 성공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롬 5:5)였습니다. 소망부 지도이신 이종대 목사님과 충현기도원 지도이신 윤종일 목사님, 소망부 심방 담당 정복인 전도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시간시간마다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소망부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의료, 체조, 사진, 간식, 찬양 인도, 특송 등 여러 가지 담당하신 분들의 수고로 모든 준비물들이 풍성하고 은혜롭게 진행되어 소망부 학생들 모습이 은혜스럽게 변화되어 돌아

오는 길이 더욱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중추역을 달리고 있는 분들의 연세와 상관없이 건강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한평생 기도하시면서 신약과 구약을 잠수시고 즐기면서 살아 오셨기 때문에 건강에 복을 받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충현교회의 신앙의 주추들로 한 평생 사신 분들입니다. 나라와 민족 통일, 교회와 목회자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사셨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땀땀하셨습니까.

수련회 첫 시간 개회 예배에서 이종대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인내심을 길러낼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 중에 제일 큰 것이 인내심이라고 하였고 이미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소망부 졸업하시는 날 영원한 하늘나라 믿음의 완성품들이 되시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윤종일 목사님께서도 강의를 통해 이번 기회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추억이 되자, 노년에는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기쁘고 즐겁게 살자, 마지막 날까지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아픔과 같이

◀ 시 ▶

기도의 시작이 완성되는 날

동강난 땅 찢어진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은 이 나라
비수로 도려낸 아픔의 6·25
죽으면 살리라 휘어서 굽어서 46년.

평화 대신 핵의 공포 전쟁의 소문
깨어나 일어나 기도할 때
제2의 6·25 위협은 사라지고
얼어붙은 북녘땅 녹이시는 하나님.

휴전선 담장 너머 가련한 내 동포
삶도 신앙도 세월에 지쳐 흐느끼는 몸부림
꺼져가는 저 영혼들이 애원
침묵으로 듣고 계시는 당신은 구원자.

기도의 팔이 하늘 드높이 들려질 때
동에서 서까지 허물어지는 철조망
낮은 인간의 음성까지 들으시고
전쟁을 평화로 바뀌놓는 능력의 하나님.

손 높이 들수록 승리한 모세
단 한번에 끌리앗 죽인 어린 다윗
함성으로 여리고성 허물어뜨린 여호수아
하나님의 기를 앞세운 성인들의 승리.

기도의 시작이 완성되는 날
복음화 통일 앞당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는 평화
왕 같은 제사장 나라 영원한 나라.

김 운 섭

(집사, 초등3부 교사)

마지막 장식을 잘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복인 전도사님께서 기도 중요성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동작이다, 기도로 가꾸고 복음으로 가르치시며 살아오신 소망부 학생들은 이제 기도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시간마다 뜨거운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 받고 수련을 받으신 소망부 학생들에게는 이번 수련회가 10년 이상 젊어진 기분으로 우리는 노인이 아니야, 아직 60대야, 소망 중에 살아가는 학생이야 하는 자부심으로 남은 인생 젊고 밝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이번 수련회 주제와 같이 소망 중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좁은 생각과 두뇌를 훨씬 뛰어 넘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동안 자동차 사고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마성락 부장 장로님의 건강이 생각보다 빨리 완쾌되시어 이번 수련회를 총지휘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주심이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는 어른 대접을 받던 교사들이 자기만 학생들을 위해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몸으로 무거운 이부자리를

머리에 이고 2층까지 오르내리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교사들은 세상의 명예와 지식보다 더 좋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 인생을 마감하시는 소망부 학생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며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외로울 때 대화의 친구로,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그분들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교사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날 아침 5시 30분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소망부 학생들은 옛 기억을 더듬으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했던 국민체조를 하면서 피로를 풀었습니다.

여교사들은 한 방에서 친교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친교하면서 하나 되어 동심으로 돌아가 아늑하고 꾸밈 없는 진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은 은혜받고 변화되어 산 돌이신 예수님만 높여 드리면서 신앙 생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충현기도원을 떠나 왔습니다.